

EQUITY BRIEFING · 005930.KS

삼성전자

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이끈 사상 최대 실적, AI 메모리 변곡점에 서다

기준일 2026-06-14 · 종가 2026-06-12 · KRX KOSPI

333.6조

FY2025 매출

43.6조

FY2025 영업이익

322,500원

종가 (2026-06-12)

약 1,885조

시가총액

사상 최대 실적과 AI 메모리 모멘텀이 기업가치를 재평가하고 있다

01

FY2025 사상 최대 실적 달성

43.6조

매출 333.6조·영업이익 43.6조(YoY +33%). FY2023 저점(6.6조) 대비 V자 회복.

02

2026 Q1 잠정 영업이익 57.2조 — 슈퍼사이클 본격화

57.2조

DRAM 계약가 QoQ +93~98% 급등, 영업이익의 90%+가 메모리에서 창출(잠정).

03

HBM4 출하·2나노 양산으로 AI 메모리 추격

HBM4

단 HBM 점유율 열위(약 17%)와 메모리 사이클 변동성이 핵심 점검 포인트.

반도체·디바이스·디스플레이를 아우르는 글로벌 전자 리더

1969

설립 연도

수원

본사 (디지털시티)

전영현

대표이사 부회장

128,881

임직원 (2025)

사업 영역

- 메모리 반도체 — DRAM · NAND · HBM
- 시스템 반도체 — 시스템LSI · 파운드리
- 스마트폰·모바일 — Galaxy (MX)
- 영상디스플레이·생활가전 — VD · DA
- 디스플레이 패널 — 삼성디스플레이 (OLED)
- 전장·오디오 — Harman

DS(반도체)가 이익을 견인하고 DX·SDC·Harman이 매출을 분산한다

DS

매출 44.0조 · 영업이익 16.4조

반도체 (Device Solutions)

메모리(HBM·서버DDR5) 호조로 분기 사상 최대. 전사 이익의 핵심.

DX

디바이스경험 (MX·VD·DA)

갤럭시 MX 두 자릿수 이익률, VD·가전은 원가 부담. Q4 매출 QoQ -8%.

SDC

매출 9.5조 · 영업이익 2.0조

삼성디스플레이

중소형 OLED 중심. 패널 수요 견조.

Harman

매출 4.6조 · 영업이익 0.3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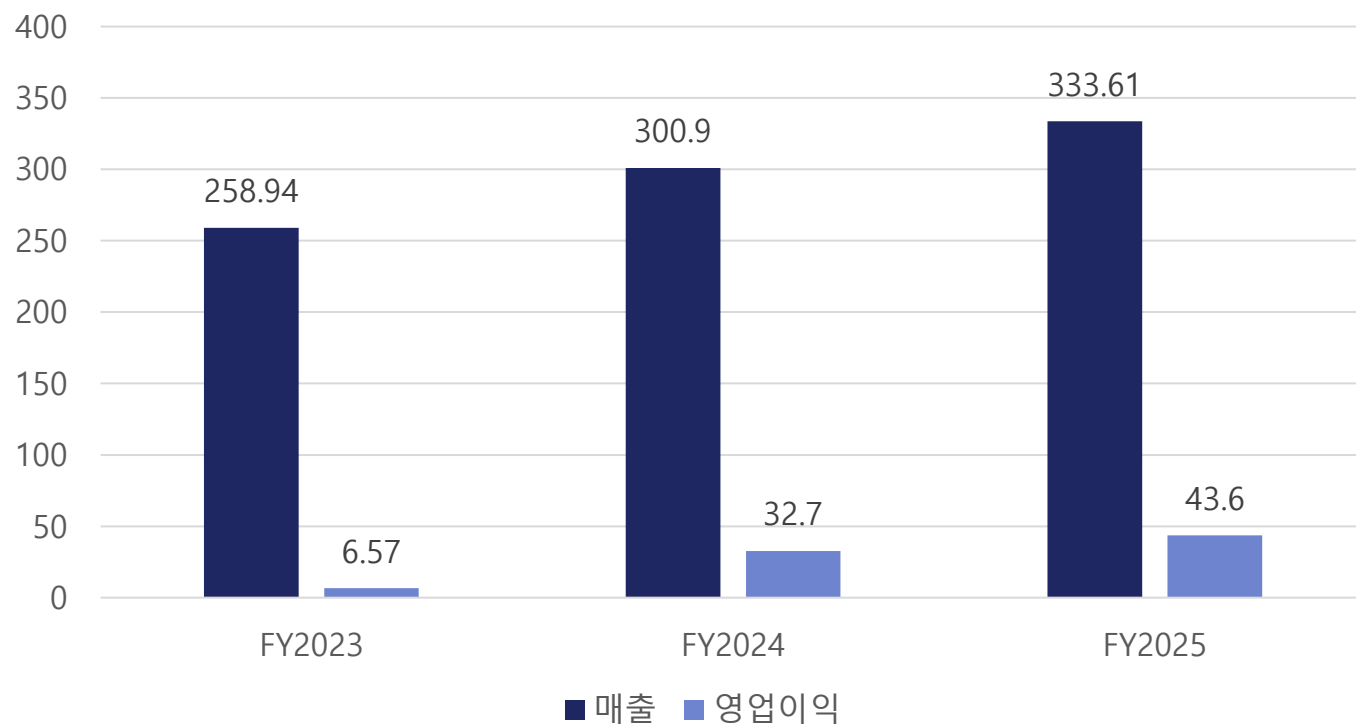
전장·오디오

유럽 전장 공급 확대 + 오디오 성수기.

* 부문 수치는 2025 Q4 분기 기준(연간 부문 합산은 미공개)

영업이익이 1.5년 만에 저점 대비 V자로 회복했다

전사 매출·영업이익 (조원)



+10.9%

FY2025 매출 YoY

+33.2%

FY2025 영업이익 YoY

37.7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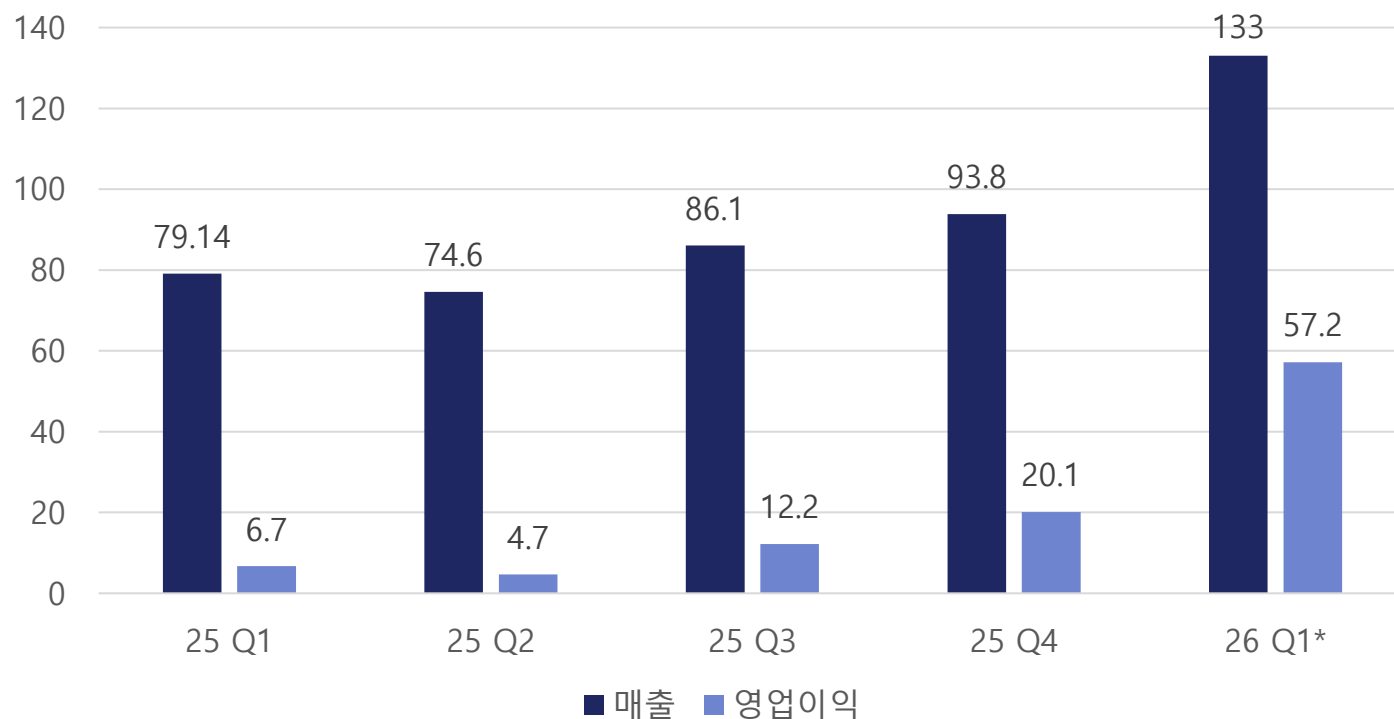
R&D 투자 (역대 최대)

약 47.4조

시설 투자

분기 실적이 매 분기 경신하며 2026 Q1 잠정 57.2조로 도약했다

분기 매출·영업이익 (조원)



133조

2026 Q1 매출 (잠정)

57.2조

2026 Q1 영업이익 (잠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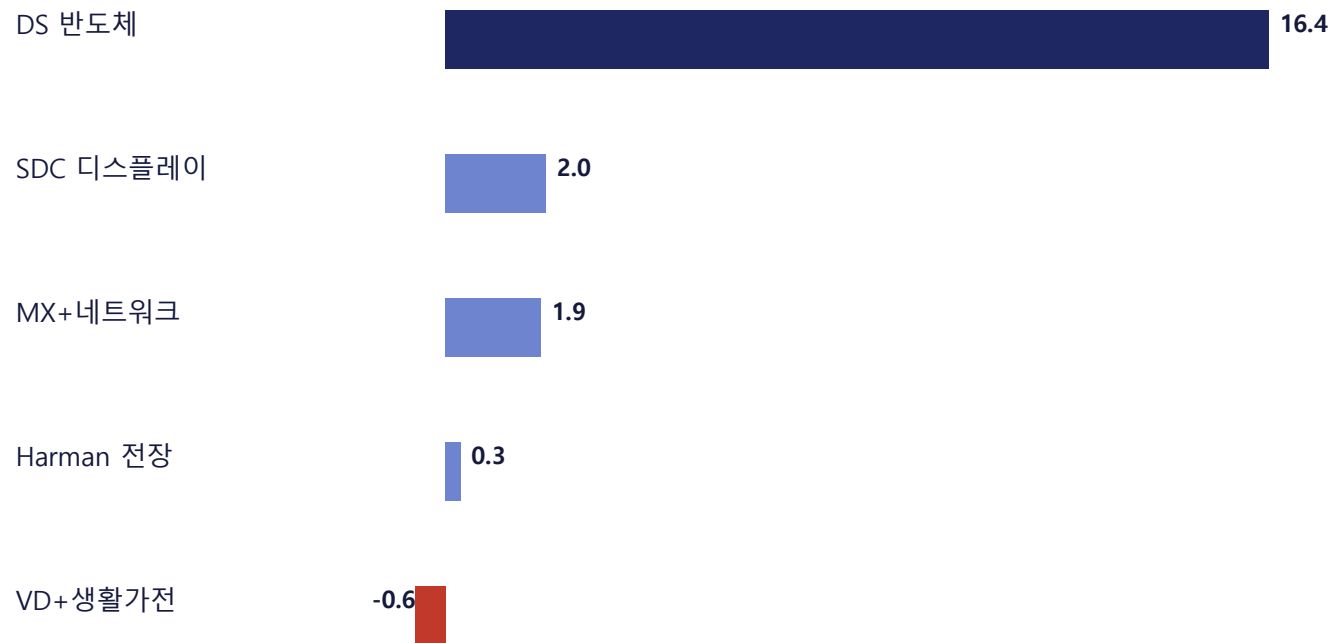
+208%

2025 Q4 영업이익 YoY

* 2026 Q1은 2026-04-07 발표 잠정실적(확정 아님, 단일 출처)

DS(반도체)가 부문 이익을 압도하고 VD·가전은 적자를 기록했다

부문별 영업이익 (2025 Q4, 조원)



44.0조

DS 매출 (QoQ +33%)

29.3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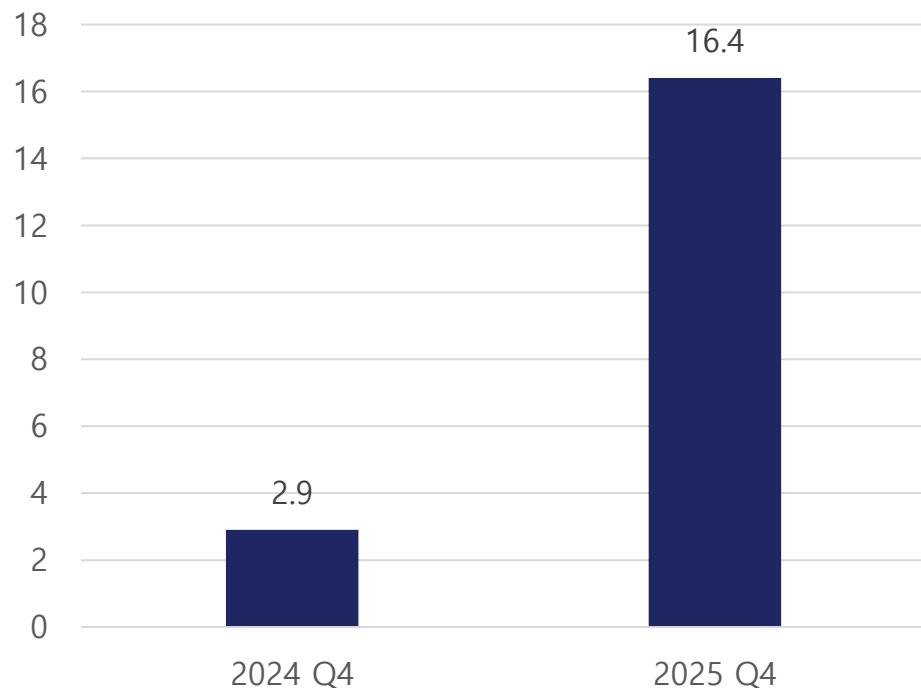
MX+네트워크 매출

14.8조

VD+가전 매출

메모리 회복으로 DS 분기 영업이익이 1년 만에 5.7배로 급증했다

DS 부문 영업이익 · Q4 (조원)



핵심 동인

■ 메모리

HBM·서버DDR5·기업용 SSD 등 고부가 + 범용 D램 가격 상승. 분기 사상 최대.

■ 시스템LSI

계절적 비수기로 감소, 이미지센서 신제품 매출 증가.

■ 파운드리

1세대 2나노(SF2) 양산 개시, 4나노 HBM 베이스다이 출하(적자 지속 추정).

DRAM 계약가 급등이 메모리를 전사 이익의 절대 축으로 만들었다

+93~98%

2026 Q1 DRAM 계약가 QoQ

90%+

2026 Q1 영업이익 중 메모리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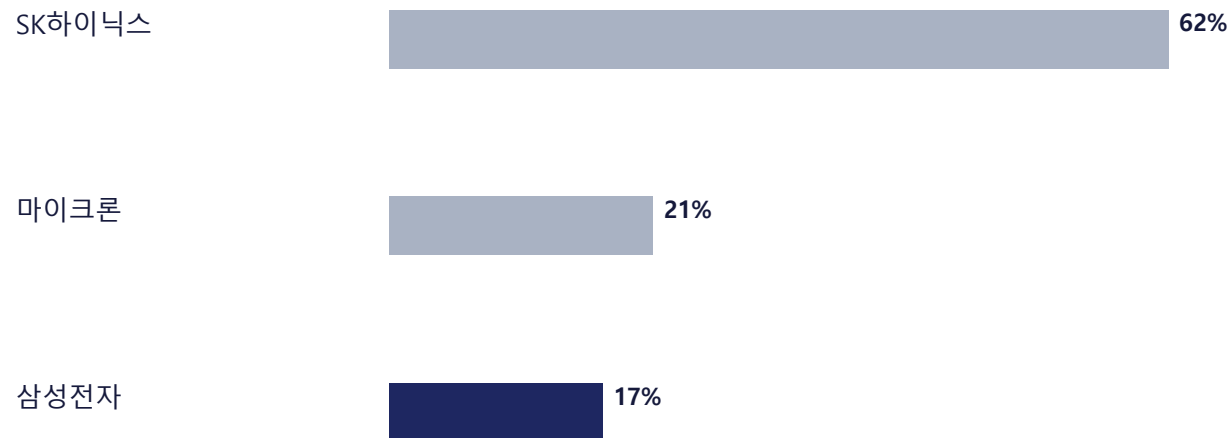
~2027

범용 메모리 가격 강세 전망

AI 가속기 수요 폭증으로 HBM·서버 DDR5·기업용 SSD 등 고부가 메모리가 실적을 견인한다. HBM 집중에 따른 범용 D램 capa 축소의 '풍선효과'로 범용 가격 강세도 2027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.

HBM에서는 SK하이닉스가 독주, 삼성은 HBM4로 추격하는 단계다

HBM 시장 점유율 (추정, %)



HBM3E

엔비디아向 SK 사실상 독점

HBM4

삼성 2026 Q1 본격 출하

3배 +

2026 HBM 매출 목표(YoY)

엔비디아 차세대 가속기향 HBM3E는 사실상 SK하이닉스 독점 공급. 삼성은 HBM4(6세대) 양산 진입으로 점유율 반전을 노린다.

* 점유율은 증권가 추정치(출처별 편차 존재)

HBM4 양산 진입으로 AI 메모리 주도권 탈환을 노린다

2026 Q1

HBM4 본격 출하

1c D램 + 4나노 베이스다이 적용, 엔비디아 차세대 가속기향 공급 노림.

11.7 Gbps

HBM4 동작 속도

HBM3E 9.6Gbps 대비 +22%, JEDEC 규격 대비 +37% 빠른 속도.

2026 하반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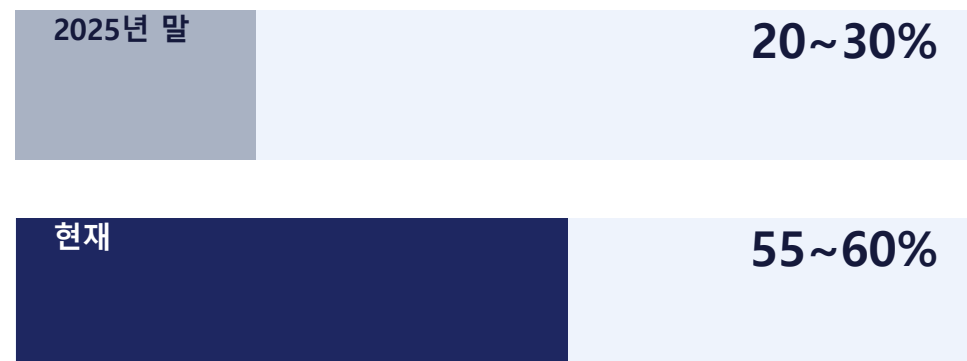
HBM4E 샘플 출하

차세대 확장 로드맵으로 기술 리더십 격차 축소 추진.

2026년 HBM 매출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확대가 목표다. 일부 추정으로는 매출 약 24조원, 출하 112억Gb, 매출 점유율 약 29% 수준이며, 이는 증권가 추정치다.

2나노 수율 개선과 엔비디아 수주로 파운드리 턴어라운드를 노린다

SF2(2나노) 수율 개선



턴어라운드 동인

- 엔비디아 추론칩을 삼성 파운드리 4나노 공정에서 양산 (GTC 2026 확인).
- 4나노 HBM 베이스다이 출하 — HBM+파운드리 AI 동맹 확장.
- 2026년 2나노 2세대(모바일) + 4나노(메모리용) 양산 계획.
- 단, TSMC와의 격차·가동률 안정화 전까지 적자 부담은 지속.

MX는 두 자릿수 이익률, VD·가전은 흑자 전환으로 체질을 개선한다

MX

갤럭시 모바일

2025년 연간 두 자릿수 이익률 달성. 플래그십 (S25 세대) + 폴더블·태블릿·웨어러블.

VD·DA

영상·생활가전

Q4 영업적자(0.6조)에서 2026 Q1 흑자 전환. 패널·원가 부담 완화.

Harman

전장·오디오

유럽 전장 공급 확대 + 오디오 성수기(포터블·TWS 신제품).

신모델 출시 효과의 분기 변동성은 존재하나, 프리미엄 믹스 강화로 수익성 기반은 개선되고 있다.

메모리 호황을 선반영해 주가는 1년 새 저점 대비 5.7배 상승했다

52주 주가 레인지 (원)



52주 저점 56,900원(2025-06-16) → 고점 370,000원(2026-06-02). 메모리 슈퍼사이클 랠리.

322,500원

종가 (2026-06-12)

약 1,885조

시가총액 (KOSPI 1위)

4.67

PBR (고PBR 구간)

47.58%

외국인 지분율

* PER은 출처별 편차(45.27 vs 25.88) — 후행 EPS 기준 차이, 사람 확인 필요

HBM 3배 성장과 메모리 강세가 2026 실적 모멘텀을 뒷받침한다

HBM 매출 3배+

2026년 HBM 매출 전년 대비 3배 이상 목표. HBM4 출하로 점유율 반전 추진.

메모리 가격 강세 ~2027

HBM 집중에 따른 범용 D램 capa 축소 '풍선효과'로 가격 강세 지속 전망.

파운드리 턴어라운드

2나노 양산·수율 개선 + 엔비디아 4나노 수주로 적자 축소 모멘텀.

MX 프리미엄 사이클

갤럭시 S26 차기 플래그십 대기, 두 자릿수 이익률 기반 유지.

HBM 점유율·사이클 변동성·파운드리 적자가 핵심 리스크다

01

HBM 점유율 열위

SK하이닉스 독주(약 62%) 대비 삼성 17%. HBM4 추격 성패가 관건.

02

메모리 사이클 변동성

슈퍼사이클 반대 국면 위험. 2023년 DS 연간 적자(-14.9조) 전례.

03

파운드리 적자 지속

2나노 수율 개선 중이나 TSMC 격차·가동률 안정화까지 적자 부담.

04

중국 경쟁·규제

대중 수출 규제로 중국 내 생산 제한, CXMT 등 범용 D램 추격.

05

밸류에이션 부담

고PBR(4.67)·고PER 구간 — 이익 모멘텀 둔화 시 조정 리스크.

06

환율·지정학

원/달러 환율이 수출 채산성에 직접 영향, 관세·지정학 불확실성.

실적 지속성은 HBM 추격과 메모리 사이클 관리에 달려 있다

강세 논거

- ▲ FY2025 사상 최대 실적 + 2026 Q1 잠정 영업이익 57.2조의 강한 모멘텀.
- ▲ 메모리 슈퍼사이클(DRAM 계약가 급등)이 이익을 구조적으로 견인.
- ▲ HBM4·2나노 양산으로 AI 메모리·파운드리 동시 레버리지.

점검 포인트

- HBM 점유율 열위(17%) — HBM4 양산 수율·고객 확보가 실질 변수.
- 메모리 사이클 반전 위험 + 고밸류에이션(PBR 4.67) 부담.
- 파운드리 적자 지속 + 미·중 규제·환율 불확실성.

WATCHLIST

HBM4 양산 수율 · DRAM 계약가 추이 · 2나노 수율 · 미·중 규제·환율

재무 요약: 연간 및 분기 실적

전사 연간 실적 (조원)

구분	매출	영업이익	비고
FY2023	258.9	6.6	다운사이클 저점
FY2024	300.9	32.7	회복
FY2025	333.6	43.6	사상 최대

분기 실적 (조원)

구분	매출	영업이익	비고
2025 Q3	86.1	12.2	QoQ +15%
2025 Q4	93.8	20.1	분기 사상 최대
2026 Q1*	133.0	57.2	잠정 · 슈퍼사이클

* 2026 Q1 잠정실적(확정 아님). 연간 부문 합산은 미공개.

데이터 검증 상태와 한계를 투명하게 명시한다

잠정 · 단일출처

2026 Q1(133조/57.2조) — 2026-04-07 잠정실적, 전자신문 단일 출처.

출처 편차

2025 Q2(74.6 vs 74.0), FY2024 영업이익(32.7 vs 32.1) — 공식치 채택.

PER 큰 편차

45.27(다음) vs 25.88(Investing) — 후행 EPS 기준 차이, 확인 필요.

미확보 데이터

FY2024-FY2025 순이익, 연간 부문 합산, 메모리 개별 손익 미공개.

추정치

HBM 점유율(SK62/삼성17), 2026 HBM 매출(약 24조) — 증권가 추정.

교차확인 완료

주가(322,500원) 3출처, FY2025 실적·부문 Q4 등은 2+출처 확인.

면책: 본 자료는 공개 정보 기반 분석으로 투자 권유가 아니며, 투자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
CLOSING

사상 최대 실적은 '메모리 슈퍼사이클'이 만들었고, 그 지속성은 'HBM 추격과 사이클 관리'가 결정한다.

기준일

2026-06-14 · 종가 2026-06-12

자료

삼성전자 뉴스룸·IR, 다음금융·Investing.com 등

면책

공개 정보 기반 분석 · 투자 권유 아님